



완주군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14호

2022년 2월호

군청사 옆 상전벽해 지암마을

완주군청 일대 44만8000㎡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이다.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1200여 세대의 터전이 건설되고 있다. 완주군청의 주소는 지암로61. 지암마을이 이 길 이름의 출처다. 군청 옆 복합문화지구는 원래 잠종장이었던 곳이다. 주민들은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를 현실에서 맞이하고 있다. [관련 기사 2-7면](#)

지면안내

- 길은 숲에 있어요, 숲쟁이협동조합 ... 8-9P
- 삶의 풍경 ... 10-11P
- 완두콩 새식구 반가워요 ... 14-15P
- 유송이의 술과 함께 열두 달 ... 16P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뒤척이고 사람은 또 적응하네



취- 돌아 마을 한 바퀴

날이 좀 풀렸는가. 운곡저수지에 물안개가 피어 올랐다. 안개는 서로 다른 두 온도가 만나야 만들어진다. 운곡리 지암마을 단층집들 위로 아파트 단지가 우뚝 솟아오르고 있다. 지암새터길이란 도로명처럼 새로운 터전이 열리는 것이다. 완주군청이 들어서며 시작된 변화는 주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풍경을 마주한 주민들은 이 같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마을의 변화가 변화로 이어졌으면

“아파트 생기는 걸 보니까 심란하다. 원래는 조용했는데 공사 소리도 나고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아직 어색하다. 그래도 앞으로 살다 보면 좋아지겠거니 생각한다.” 김서운(81) 어르신은 사람은 어떻게든 적응하게 돼 있는 것 같다

고 덧붙였다.

다섯 살 무렵 간중리에서 지암마을로 온 최병오(85) 어르신은 이곳에서 무려 80년의 세월을 보내며 마을의 크고 작은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해왔다. 차도 없고 제대로 된 길도 없던 시절 전주까지 30리를 걸어 장사하러 갔던 일, 새마을사업 때 처음 도로가 개설되어 버스가 들어왔던 일, 군청 건물이 지어지며 4차선 도로가 났던 일도 꼭 어제처럼 생생하다. 그는 “최근 마을에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이 개발로 더욱 변화해서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 편리한 마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암마을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큰 동네, 작은 동네로 나뉜다. 주민들끼리 ‘큰 동네’ 또는 ‘새터’라고 부르는 지암 북쪽에는 화정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 흘러 하천을 이루고 있다. 강부월(87) 어르신은 다른 어르신 세 분과 함께 바위에 앉아 쉬고 계셨다. 강 어르신은 “날이 좋지 않으면 못



위. 동네산책을 즐기다 다리 옆에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강아지와 산책 중인 표춘옥 어르신 아래. 군청사 옆으로 아파트단지가 올라서고 있는 지암마을. 마을 곳곳 봄을 준비하는 이들의 발길로 소란하다.

나오는데 웬만하면 나와서 같이 운동한다. 코로나 전에는 보통 회관에서 놀았다”며 웃었다. 이들은 평소 함께 동네산책을 즐기는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마을에 도랑이 흐르고 길도 잘 돼 있어서 살기 좋다. 좁은 골목길은 새마을사업 때 넓혔고 차도는 그 다음에서야 생겨났다”며 말한다.

과거에 지암마을을 비롯한 용진 운곡리는 ‘녹두밭웃머리’라고 불리는 척박한 곳이었다. 당시에는 주민들이 사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저수지가 생기고 나서는 농사도 짓고 살기 좋아졌다. 부월 어르신은 하천을 바라보며 “여기 바로 앞에서는 빨래를 했고 좀 위로 올라가면 보가 있는데 거기선 목욕도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봄을 준비한다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표춘옥(82) 어르신은 마



위. 열무 등을 심을 하우스에 거름을 뿌리고 있는 유진구 김민자 부부 왼쪽. 고추농사를 지을 비닐하우스를 손보고 있는 최영진 씨 오른쪽. 다섯살에 이사와 80년을 지암마을에서 지낸 최병오 어르신

침 완주군청 주차장에서 공공근로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어르신은 “일주일에 세 번 군청으로 일하러 나간다. 오늘은 별이 좋으니 집 앞을 조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지암마을에는 춘옥 어르신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하는 어르신이 여럿 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영하권을 뚫는 날씨가지만 봄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었다. 마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최영진(55) 씨는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씌우기 위해 철재를 다듬고 있었다. 그는 “비닐 입히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다. 묘목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고추 농사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을 끄트머리에 자리한 하우스에서도 유진구(63), 김민자(60) 부부가 거름주기에 한창이다. 남편 진구 씨가 트랙터에 거름을 가득 싣고 오면, 민자 씨가 삼으로 퍼내 땅에 골고루 뿌려준다. 이렇게 작업을 해두고 일주일에서 이 주 정도 지나면 거름에 밴 해로운 가스가 모두 빠진다.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부부는 “하우스 다섯 동에 열무와 경종배추, 파랑 감자, 아욱 등 다양한 작물을 심어볼 계획이다. 올 한해 농사가 풍년이면 좋겠다”고 했다. 옛 마을회관 자리에 사는 김형식 씨는 4살 때부

터 보육원에서 자랐다. 진안에 있던 보육원이 전주 중노송동으로, 그리고 완주로 이사했다. 마을 안 이산모자원이 형식 씨가 지냈던 곳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이산모자원은 현재 한부모가족 보호시설로 운영 중이다. 삶이 고단한 한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잠시 머물며 삶을 추스르고 있다.

조만간 운곡지구 도시개발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은 1200여 세대의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게 된다. 원주민과 이주민, 단층가옥들과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 시골과 도시풍경이 어우러진 지암이라는 뜻에서 서로 다른 온도가 만들어낼 물안개는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의 삶에 스며들까. ☺

지암마을은



지암마을은 완주군청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모퉁 아래에 돼지바위가 있어 저암이라 하였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암이라 부른다. 돼지바위는 바위가 돼지양덩이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린다. 돼지바위 위에 있던 모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마을에 나쁜 일들이 발생하여 위에 모정을 다시 세웠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로는 마을 안에 못(池)이 있고 못에 바위가 있어 못바위-지암(池岩)이라고도 한다.



4대째 같은 집터 지키는 마을 터줏대감

이희준 노인회장

“무탈하게 오랫동안 마을이 보존되기를”

입춘이 지나니 거짓말처럼 추운 기운이 물러가고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따뜻한 햇볕 아래서 마을을 걷다 경로회관 앞에서 이희준(79) 어르신을 만났다. 지암마을에서 태어나 여태 이곳을 벗어난 적 없다는 그는 4대째 같은 집에서 터를 지키며 살고 있다. “어느 곳에 가도 우리 같은 가족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미소 짓는 어르

신은 이 마을의 오랜 터줏대감이다. 어르신은 어느덧 자리를 잡고 앉아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군바위에서 전주이씨 사람들이 모여 당산제를 지냈던 이야기, 지암마을이 가물다 못해 녹두밭 웃머리라 불리던 시절부터 화정저수지가 생긴 후 풍년이 들었던 이야기 등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듯 막힘이 없다. “우리 할아버지가 해준 얘기로, 예전에 일본이 용담댐을 막으려다 못 막았다. 항간에 거길 막으면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었다네. 용진이 용용(龍) 나갈진(進) 한자를 쓰는데 거길 막으면 좋아진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니 아파트도 짓고 점점 살기 좋아지네 정말로.”



이희준 노인회장. 지암마을 같은 집에서 4대째 살고 있다.

김서운 할머니

“초포다리 건너 시집왔지”



지암마을회관과 지암교를 지나면 세 갈래 길이나온다. 그중에서 제일 왼편에 있는 길 너머에는 김서운(81) 어르신 집이 있다. 서운 어르신은 현재 막내아들 부부와 손주까지 함께 지내고 있다. 전주 고당리(현 호성동)에서 시집 온 뒤로 죽지암마을에서 살고 있다. “우리 친고모가 좋은 충각이 있다고 중매 맺어줬

어. 내가 말머느리었고 내 밑으로 동서가 셋 정도 있었는데 다들 멀리 나가서 살고 우리가 시부모 모시고 살았지.” 젊은 시절, 남편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서운 어르신은 집안일을 도맡았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느질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은 바느질에 소질이 있는 편이었다. 당시 가정집에 재봉틀

그는 젊은 시절 군대에 다녀온 뒤, 지인의 소개로 서른 살이 될 무렵 결혼했다. 슬하에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일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다. 한때 많이 지을 적에는 50마지기(약 1만 평)를 지었다. 벼, 대파, 고추, 들깨며 콩과 참깨 수박까지. 그의 손을 거쳐 간 작물들이 무수히 많다. 하루하루 쉴 틈 없이 흘러갔지만 자녀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라주는 모습을 보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다는 그는 “행복이 별건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내는 게 그게 행복이지”라고 말하며 환히 웃었다.

어르신 말씀처럼 요즘 그의 하루는 잔잔히 흘러간다. 겨울 끝자락에 걸터앉아 키우는 복숭아나무들이 괜스레 눈이 핑핑 돌아, 천천히 마을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이다.

“슬슬 초목들이 가지개를 켜 때라 복숭아가 건강히 잘 자라도록 이달 말부터 나무 전지를 할 계획이야. 곧 바빠질 때를 대비해서 요새는 그냥 놀아(웃음).”

그는 4대째 살아왔다는 자리에서 낡은 집을 튼튼히 고쳐 살아가고 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공간을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지키고 싶다는 희준 어르신이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온순하고, 단합심이 좋아. 서로 이해심도 많아서 싸우는 일도 없어. 이 마을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면 좋겠지만, 설명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쁜 일만 없이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 없었지만 말고, 오래오래 보존되길 바라는 게 내 바람이야.”

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는데도 곧잘 다뤘다. “친정에도 미싱기가 있었는데 언니 셋이 결혼해서 나갔을 때 바느질이 내 차지가 되었어. 그때 엄마한테 배운 걸로 시부모랑 애들 옷들도 다 만들어 입었지.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때 집집마다 다 그러고 살았어.”

어르신은 본인이 한 일은 낮춰 말하고 다른 이의 업적은 높이 샀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할 땐 “이장을 몇 번씩이나 하고 훌륭한 양반이었다. 한문도 거창하게 잘 하고 영리했다”고 말했다. 비록 어르신의 고생스러웠던 지난 일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진 못했지만 어르신 손끝에 굳은살이 훈장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다.



직접 기른 인삼과 생강을 가공해서 판매



송승관·임정아 부부

지암교를 지나 주택이 촘촘히 모여 있는 언덕 배기에 ‘홍삼이 생강날 때’라는 큼직한 간판이 눈에 띈다. 이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 이곳은 청년 농부 송승관(32), 임정아(32) 부부가 직접 재배한 인삼과 생강을 가공하고 제품을 포장하는 곳이다. 문밖 차곡차곡 높이 쌓인 택배 상자가 부부의 바쁜 하루를 대변해준다.

이곳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아내는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다 결혼 이후 완주로 귀농했다. 2019년부터 용진읍 가목리에서 인삼을 키우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지암마을에 사무실을 지은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수익을 올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완주에서 유명한 생강과 홍삼을 함께 가공해서 판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제품 개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생강청을 만들기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 웬만한 것들은 모두 맛을 보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맛에 대한 기준을 세워갔다. 생강의 맵고 쓴 맛은 보완하면서도 영양은 높이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맛이라고 생각한다. 재구매 여부는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라지기 때문이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하다

3만 평 규모의 밭에서 5년근 된 인삼만 선별하여 수확한다. 그리고 햇인삼을 찌고 말려 1년간의 숙성 기간을 거친 뒤 액으로 추출한다. 우선 점증제, 화학성분 및 방부제, 색소와 향료 등 무엇도 첨가하지 않고 순도 100% 홍삼을 저온으로 72시간 달여 만들었다. 고온에서 단시간 내에 만들지 않았기에 영양분 손실이 매우 적다.



맵고 쓴맛을 보완하고 영양이 높은 생강제품을 개발한 부부. 생강청과 편강은 완주산 토종생강만을 쓴다.

시는 분들은 물 농도를 조절해서 드시거나, 우유를 넣어 고소한 생강라떼로 드시면 된다. 또, 토굴편강은 생강 80%, 정백당 20%로 제조되어 겉면에 설탕이 묻어있지 않아 얇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안 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원사업에 응모해볼 생각이다. 또한 생강과 조화가 잘 맞는 식품을 찾아 소비자분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한 마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구매평이 있다. 단골 고객이 최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데 본인만 음성 판정 받았으며, 홍삼을 꾸준히 먹은 덕분에 아널까 싶다고 하셨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지금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계신다(웃음). 일하다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후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 있다.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믿고 드셔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건강한 제품을 정직하게 만들겠다.

홍삼이 생강날 때

-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안길 34
- 문의 010-4180-9153

[온라인 구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wanju-song
- 이외에도 우체국쇼핑몰, 쿠팡 등에서 주문 가능

[제품]

- 송림홍삼액 30포/ 1포 90ml 50,000원
- 토굴편강 300g/ 1봉지 10,000원
- 토굴생강청 500g/ 1병 17,000원
- 대추생강청 500g/ 1병 17,000원

‘홍삼이 생강날 때’ 제품의 특징점은 무엇인가

독감과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에 저항력을 키워주는 효능이 있다는 진세노사이드가 한 포 기준 28.8mg/g로 타사 제품 대비 고품량 함유되어있으며 그에 반해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생강청과 편강에 쓰이는 생강은 완주에서 직접 재배한 토종생강만을 사용한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따뜻한 물에 생강청을 넣어 드시면 진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매운맛을 잘 못 드

가마솥에 콩 삶고 황토방에서 메주 띄워

산들농원 김도자·정영만 부부

지암마을 북쪽 동네 골목길에 들어서니 '행복마님'이라 적힌 간판이 멀리서도 보였다. 이곳은 마을에서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옥상에서 마을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즐비하고 옥상에는 메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얼핏 봐도 장 담그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산들농원 행복마님'을 운영하는 김도자(68) 대표와 남편 정영만(68) 씨는 22년 동안 복숭아 농사를 지어왔고 장류 사업은 8년째 하고 있다.

부부는 집 안에서도 바빠 움직였다. 오후에는 보통 택배 작업을 하는데 이날은 옛기름하고 메주 가루를 보내는 중이었다. 집에서 장을 담그는 고객이 어느덧 네 번째 주문을 했던 것이다. 김도자 대표는 "원래 옛기름이나 메주가루는 판매 상품이 아니었는데 한 번 주문하고 또 찾아주시니 뿌듯하다. 전화로 장 담그는 방법을 물어보면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2000년도 초부터 복숭아 농장을 운영했

고 현재 복숭아 3천 평, 콩 4천 평 농사를 짓고 있다. 예전부터 장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김도자 대표는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에 장류발효과가 개설되던 해에 곧바로 입학했다. 2012년도에 장류발효에 대해 배우고 2013년도에는 창업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부터 사업자를 등록하고 장류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로 8년 차인 장류 사업은 점점 입소문이 나서 맛과 품질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직접 농사지은 콩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보리, 참쌀, 고추도 주변에서 구매하고 있다. 값싼 재료가 아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친화적으로 농사를 지을 뿐 아니라 장을 담글 때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가마솥에다가 불 때서 메주콩을 삶고

복숭아 농사 22년, 장류 사업 8년째

황토방에 메주를 띄워 놓는다. 황토방에서 습을 완전히 빼야 잡균이 안 생기고 구수하면서도 맛난다. 가끔 전통방식으로 하는 걸 못 믿는 분들은 직접 확인해보고 가기도 한다"며 웃었다.

이들은 복숭아 농사에 이어 콩 재배와 장류 제조까지 함께 하다 보니 1년 내내 쉴 틈 없이 바쁘다. 또한 최근에는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을 인정받는 등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남은 계획이 궁금했다.

끝으로 부부는 "사라져가는 전통방식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승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모든 제품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다른 부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해썬인증 시설과 체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여유가 생기면 주변 이웃과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

산들농원

☎ 주소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645번지
☎ 문의 010-6637-6143



전통방식을 고집해 메주를 만드는 산들농원 김도자·정영만 부부.



일 많고 자식 많아 마을 최고 부자

일곱 남매에
총무일은 10년째



마을 총무 정춘기 어르신

지암마을 최고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정춘기(75) 어르신을 만났다. 부자라는 별명은 일 많고, 자식도 많아서 사람들이 붙여준 말이다.

마을에서 총무직을 10년째 맡고 있는 어르신은 "총무는 시간을 많이 빼기는 일이라 마을주민들이 총무를 잘 안 맡으려고 한다. 그만두려 하면 한 해만 더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한 게 어느덧 10년째"라며 웃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춘기 어르신은 전주로 고등학교를 진학했다. 3학년 1학기 재학 중에 학교에서 염지공장으로 취업을 권했고 19살 나이에 경남 진주로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땐 길도 안 좋고 차편도 많이 없었어. 진주에서 완주까지 오는 완행버스를 타면 꼬박 하루 정도 걸릴 만큼 먼 거리였지.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까 열심히 했지."

춘기 어르신은 30대 무렵 아버지의 건강악화로 농사를 물려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처음 농사를 시작해 서툴다 보니 하는 족족 썩거나 병이 들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 폐기 처분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중 동네에 담배농사를 지도했던 주재기사가 담배농사를 권유했다. 당시 담배농사는 썩어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이를 계기로 담배농사를 시작했고 17년 동안 이어왔다.

"농촌에서 7남매 자식을 가르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담배농사는



집 앞마당 복숭아밭에서 선 정춘기 어르신. 한켠에서 키우는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꽤 잘돼서 자식들 다 대학도 보내고 다행이었지." 춘기 어르신은 슬하에 7남매를 두고 있는데 딸 여섯, 아들 하나다. 다섯째까지는 모두 딸이고 막내는 이란성 쌍둥이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지만 딸이 전주에 있어 자주 찾아온다. 요즘 네 살배기 손녀와 숭바꼭질 하며 노는 게 그의 낙이다.

어르신의 일과는 농장에 있는 닭 30마리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최근에 닭 한 마리가 알을 품어 부화하는지 관찰하는 재미로 자주 오간다. 집 앞마당에는 500평 복숭아밭이 있고 차로 3분 거리 떨어진 곳에는 3천 평의 복숭아, 알밤과수원이 있다.

김권갑·김순자 부부

수박농사 지어 로컬직매장으로



지암마을에서 좁은 언덕길을 걷다가 한 집에 닿았다. 마당에는 강아지 세 마리 정도 있고 종종 고양이가 밥 먹으러 찾아오는 곳이다. 이곳에 사는 김권갑(74), 김순자(71) 부부는 모두 익산에서 왔다. 권갑 어르신은 열일곱에 익산 왕궁면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고 순자 어르신은 스톤일곱에 익산 함열읍에서 시집왔다.

부부는 "예전에 저수지가 없을 땐 땅이 가물어서 비만 오면 모를 심었다. 그땐 땅도 소가 갈아주고 쓸어줬고 지게로 짚어다가 흙데(벼훅이)로 훑었다"고 말했다.

현재 부부는 벼농사, 수박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벼농사는 가족끼리 먹을 만큼만 하고 수박은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다. 수박 농사 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만큼 일을 못 해. 입춘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져서 밭일을 시작하는 중인데 복숭아나무 대신 알밤 나무를 절반 심었어."

복숭아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봉지를 씌우는 일 등 손이 많이 간다. 그에 비해 일이 적은 알밤나무를 절반 심었다. "올해는 1,500만 원을 주고 복숭아 기계를 샀어. 원래는 경운기에 올라타 수확하느라 위험했는데 이제는 좀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겠어. 옛날에 시골의 부자라 함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는데 내가 딱 그래." ☺

모는 3마지기(약 900평)씩 두 번 짓고 있는데 3월 22일에 한 번 심고, 그다음에는 4월 말일에 심는다. 권갑 어르신은 "많이씩 하면 못 쓰니까 한 끼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한다. 열여덟부터 구르마 끌고 전주에 옮겨다 팔아봐서 수박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수박은 탄저병을 제일 조심해야 하고 물은 시간에 맞춰서 잘 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올해 소망은 "건강하게 일 많이 하는 것"이다. 수박농사도 고추, 참깨, 벼농사도 큰 피해 없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어 부부는 "우리 마을이 단체 화합이 잘 되는 편인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길은 숲에 있었다



숲쟁이협동조합

울퉁한 편백나무숲 사이 자리한 아담한 목조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갓 내린 고소한 차 향이 물씬 풍겨온다. 벽면에는 가지각색의 꽃꽂이를 수놓은 손수건과 가방이 진열돼 있고, 숲을 일부 옮겨온 듯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자른 단면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었다. 공간 한편 다양한 차와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까지 마련된 이곳은 다른 아닌 숲쟁이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숲에서 얻은 새로운 기회

숲쟁이협동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전북생명의 숲나눔사업단 활동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산림청 일자리발전소 그루경영체로 발탁되어 협동조합을 설립, 숲해설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과 성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약 15명에서 20명 정도이다.

조합원은 숲해설전문가를 포함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약용식물지도사, 야생화자수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숲쟁이협동조합은 숲해설가 양성, 숲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용식물을 활용한 차도 개발했다.

“우리가 전하는 숲의 순수함이 모두의 삶 물들이길”

목표였다”고 말했다. 사실 이 대표에게 약용식물에 빠질 수밖에 없던 계기가 있었다. 과거 그의 지인이 암 투병 중 숲에서 약효가 있다는 식물을 찾고 나서 완치가 된 것을 목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물론 꼭 약용식물로 인해 병이 치료됐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숲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과 만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체취를 느끼는 일련의 과정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2019년부터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약용식물을 활용한 차 개발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차 형태가 아닌 즙으로 만들어보기도 했다가, 여러 종류의 지역 임산물을 사용해보며 가장 맛도 좋고 영양도 어우러지는 차를 선보이기 위해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라지, 배, 생강 등 10가지 약초를 우린 ‘미스황차’를 개발했다. 이 차는 기침과 가래, 기관지염과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에코 티어링’이라는 나침판과 지도를 이용해 목적지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무작정 숲길을 걸어보는 것이 아닌 생태계의 중요성과 숲의 가치, 나무들이 사계절을 나는 방법 등 거점마다 제시된 퀴즈를 맞히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럿이 아



그중에서도 이영희(66) 대표는 약용식물에 관한 공부를 해왔다. 그는 “사람과 식물이 더불어 이롭게 살아가는 방법, 약용식물을 사용해 우리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숲쟁이협동조합

- 주소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편백길 191-24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연중무휴)
- 문의 010-9405-0576 (이영희 대표)

[온라인 구매]

- 주소 smartstore.naver.com/immisshwang
- 문의 063-287-0008

f'm 미스황 티백

- 2.5g X 15개 / 15,000원
- 2.5g X 30개 / 28,000원

미스황!골드진액 스틱

- 10g X 10봉 / 15,000원
- 10g X 20봉 / 28,000원

미스황!티백 15개 + 골드진액 스틱 10봉

- 2.5g X 15개 + 10g X 10봉 / 30,000원
- 2.5g X 15개 + 10g X 20봉 / 42,000원

- ※ 선물 포장시 2,000원 비용 발생합니다.
- ※ 5만원 이하 주문 시에는 택배비 2,500원



일터지만 놀이터같은 숲에서 더불어 즐겁게 실천해요

이영희 대표



닌 오로지 혼자서도 키트 하나만 챙겨 체험할 수 있기에 지금 같은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실천하는 삶

숲쟁이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서, 지역산물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한다. 이에 올해 1월부터는 ‘지구의 친구 플리마켓’이라는 행사를 열고 서로 안 쓰는 물건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며 내뿜는 방대한 양의 탄소를 숲이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사라지지 않고 번창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우리가 운영하는 곳은 일터이지만,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것이 숲쟁이협동조합의 신조이다. 우리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숲을 만나고, 숲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전하는 숲의 순수함이 모두의 삶을 물들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북 최초 완주군 공영제 마을버스

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500원

전북 최초로 마을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완주군이 올 2월 운행확대를 계기로 주민들의 교통비용 감소 효과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부터 소양면과 상관면, 구이면, 동상면 4곳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시간선제 2단계를 시행하는 등 ‘완주형 대중교통 공영제 마을버스’ 운행이 확대됐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마을버스 이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정식운행이 시작되는 이달 19일 전까지 2주 동안 시범운행에 들어갔으며, 시범운행 기간을 포함한 2월 한 달 동안 무료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 최초의 마을버스 직영공영제 운행은 작년 6월 1단계(이서면)에 이어 이번 2단계 4곳까지 총 5개 면 지역으로 확대됐다.

완주형 대중교통 공영제 마을버스 운행은 간선노선인 전주시와 읍면 소재지 구간은 전주 시내버스가, 지선노선인 읍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는 완주 마을버스가 각각 운행하는 등 간선과 지선을 나눠 운행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이전에는 완주군 각 마을에서 전주 시내버스를 이용해 읍면 소재지까지 나갈 경우 시내버스 일반요금 기준 현금 1,500원을 무조건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완주형 마을버스를 탈 경우 일반인과 초·중·고 학생들이 현금과 카드 구분 없이 500원만 내면 된다. 읍면 소재지에서 전주로 환승해도 마을버스 요금 500원을 뺀 추가분 950원만 징수하는 교통카드 환승시스템을 구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 시행을 위해 전주시와 지선간 노선을 개편한 만큼 당초 취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 개념도



예시 소양지역

아픔을 친구삼으니
이 길이 되어 산골로 인도했네

장이경의 삶의 풍경

검태마을 한해숙 씨 이야기

대부분의 거창한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일쑤지만 나에게게는 3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결심이나 습관이 몇 가지 있다. 하루에 만보걷기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책읽기 모임이다. 토요일 오후에는 별일 없으면 네 다섯 명이 모여서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는다. 어려워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들을 골라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그렇게 소리를 내다보면 글쓴이의 문장들이 구체적인 생각이나 물음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함께 웃고 떠들고 울었던 시간들 덕분에, 다쳐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와중 우리는 어느덧 마흔을 넘거나 그 즈음이 되어갔다. 젊었던 몸이 변해가고 주변의 아픈 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생각이나 물음은 자연스럽게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입춘이 지났지만 매섭게 추던 날, 땀감 인심 좋은 한해숙 씨의 방바닥은 뜨끈했고 유자차를 나



박종표 한해숙 부부

뉘 마시며 그의 질병서사를 듣고 있자니 책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새벽 세시는 이 변화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각되는 시간이다. 통증의 들쭉심에 속절없이 지새우는 밤의 새벽 세 시를, 쏟아지는 잠을 떨치며 지친 몸으로 아픈 이의 머리맡을 지키는 새벽 세 시를, 나이 들어가며 '전 같지 않은' 몸을 마주하게 되는 새벽 세 시를 떠올려 보라. - 본문 여는 글 중에서』

살기위해 동상면 깊은 산골로 찾아들어왔다는 한해숙 씨(58세). 목발에 의지해 겨우 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으면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다. 48세에 다발성경화증 질환을 앓게 되었고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술한 밤 잠 못 이루었을 새벽 세시의 해숙 씨의 몸. 한해숙의 몸은 그 새벽의 아픔을 어떻게 보냈을까.

“웃이 살에 스치지만 해도 고통스러웠고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가 없었지. 그래도 혼자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어. 고춧가루를 맨 손으로 막 버무리면 화닥거리잖아. 그렇게 발목이 화닥거리. 그러다가 시리고 아려. 고통 때문에 긴 잠을 못자.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잠깐 지쳐서 자는 거야.”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던 시절

해숙 씨는 무주 산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온 가족이 서울로 이주를 했다. 오빠들, 동생들, 삼촌들까지 대가족이 살다보니 살림을 도맡아 했다. 그 와중에 양장점, 공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친구 따라 전주로 내려와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서른 중반 무렵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만 했다고 한다. 친정의 대식구에게 생활비를 보태다 보니 그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만 했다. 큰 병은 늘 신호를 보내온다.

“그 무렵 입병이 낫지를 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팔이 올라가지 않더니 어느 날 평상시에 붙곤 들던 상을 들 수가 없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지. 동네 정형외과를 갔는데 서둘러 전북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 병원에서는 계속 보호자를 찾았는데 나는 혼자였어. 내 스스로가 보호자라고 우기니까 입원시켜줘서 그렇게 홀로 병원생활이 시작된 거지. 혼자 휠체어 타고 대충 씻고 그랬지. 원무과에서 복잡한 입원수속 하는 것도 온전히 내 몫이야. 병원을 하도 많이 다녀서 나중에는 서울, 경기도까지 내가 혼자 버스타고 택시타고 옮겨 다녔어. 진짜 말하고 보니 내가 참 지독한 사람 같아.”

온 몸의 통증보다 두려웠던 것은 하반신 마비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남자가족들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못 말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일어나려고 이를 앙 물었다. 기저귀를 차다가 냄새가 심해지면 목발을 짚고 잘 다니던 목욕탕을 찾았다.

“세신사 언니들이 나 많이 셋겨웠지. 그 언니들이 내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아이고 해숙아. 니가 어찌 이러냐. 뭇 험다고 밤낮없이 일만해서 이렇게 몸이 상했다.’ 하면서 때때 밀면서 내 다리 신경을 더 주물러 줬던 거 같아. 다 친분이 있는 언니들이었어.”

세 식구의 산골 삶이

아픔의 세월 속에서 짧게 스쳐가는 고마운 사람들과 급격한 전환을 가져다 줄 사람들도 만나



위부터. 앞마당에서 손수 난로를 제작하고 있는 남편 박종표 씨. 남편 박종표님의 환갑 겸 부부의 재결합을 기념하기 위해 결혼사진을 찍었다. 부화기에서 태어난 병아리들이 닭이 되어 알을 낳는다. 곧 목으로 만들어지게 될 말린 도토리. 해숙 씨는 반려동물 난이와 힘을 합쳐 발에 내려온 멧돼지를 각목으로 때려잡기도 했다. 잘생긴 백구. 소일거리 삼아 삼목해 놓은 수국.

되었다.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시절에 친정엄마마저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해숙 씨는 엄마 걸을 지키기로 했다. 제대로 걷지 못해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의지해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헤어졌던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한다. 헤어지고 18년 만에 처음 만났던 것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남편 박종표 씨가 도시생활을 접고 지리산 산골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는 해숙 씨는 불현듯 '나도 데려가 달라'는 말을 건넸다. 그를 따라가면 웬지 이 병이나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혼자다 다시 돌이 되고 셋이 되었던 대전환의 시기였다. 그 무렵 해숙 씨의 조카가 자신의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 그의 16개월 된 아이, 한결이도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세 식구의 산골생활이 시작했다. 지리산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아는 사람 소개로 동상면 검태계곡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올해로 5년이 되어 간다.

처음 마을로 들어오던 해, 집 주변으로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무주 산골 살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한다. 해숙 씨의 어머니는 도토리를 '꿀밤'이라고 불렀고 함께 주워서 목을 쏘곤 했는데 어찌나 보았던 기억을 되살려 목을 췌었다고 한다.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어서 팔아보라고

우기를 보태준 덕에 고추, 깨, 콩 농사보다는 도토리묵과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한다.

예전에 다녔던 병원으로 진찰을 받으러 가면 의사도 놀란다고 한다. 그 당시 함께 치료받던 환자들은 병세가 더 심해져 누워있는데 해숙 씨는 두 발로 걸어서 찾아오니 말이다.

“어차피 이 병은 친구야. 그러니까 발에서 움직이던 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돼. 내 몸 아프다고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면 못 일어났을 거야. 어차피 병이나 아픔은 친구라니까. 살면서 함께 가는 거야. 내 스스로를 돌본 것이 지금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한 힘이 된 거 같아. 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서론에 소개한 책에서는 두려움은 힘이 세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해숙 씨는 놓지 않고 앉으려했고 걸으려 했다. 그 간단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그를 살게 했다. 봄이 늦게 찾아오는 완주의 검태계곡이지만 한해숙 씨의 얼굴에는 이미 연두빛 봄이 찾아왔다.

아동친화 뉴스레터

12 민주시민_4

완주아이들의 '나의 아버지',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몇 년전나의 아버지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영이 훨씬 지난 후에야 지인의 추천으로 드라마를 보게 되었지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중년인 저에게 강한 공감과 깊은 감동, 그리고 눈물과 오열까지 여러 감정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청각장애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지안은 교육은커녕 살인범으로 몰려 생계에 급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같은 회사에 박동훈 부장은 이지안을 위해 회사에서 그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폭행을 일삼는 폭행범과 싸워주고, 할머니 요양원 입소를 위해 법적내역을 알려주는 등 키다리 아버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박 부장은 이지안의 인생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동아줄이 된 것입니다. 꽤 시간이 지난 후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된 이지안은 우연히 한 카페에서 박동훈 부장을 만난 뒤에 진심을 다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밥 살게요. 아버지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싶어요."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리 동네,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지역에 나의 아버지가 한 명쯤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하게 된 완주만의 프로젝트가 바로 '아동옴부즈퍼슨' 독립적 대변인 정책입니다. 그간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인권침해행위에 취약하였고, 그들의 견해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며,

투표권이 없어 정치적·정책적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수단은 사법체제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민간단체 또한 매우 제한적인 활동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93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파리원칙은 모든 국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 대변인인 아동옴부즈퍼슨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만을 위한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죠.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침해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지리적·물리적인 접근성이 제한되지요. 특히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아동·청소년집단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완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우리 완주는 자부심이 있고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역동성이 있습니다. 완주에서 성장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꿈을 꾸고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

든 아동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하고, 누구나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진입을 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관청의 한 부서나 민간의 한 단체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방향과 잘못된 관행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일에 전국최초로 운영하는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아동옴부즈퍼슨 모델 수립 및 매뉴얼 개발은 2월 마지막 주에 최종 보고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개발되면 완주군에서 시범으로 운영한 뒤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매뉴얼을 배포하게 됩니다. 매뉴얼 개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몇 달이지만,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나의 아버지'가 생긴다는 첫 발걸음에 가슴이 설렙니다.

<본 기고문은 완주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홍문기 박사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연구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현재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다.



마을소식

낭독하고 이야기 나누고

비봉 백도리 주민 여섯 명 글쓰기모임

비봉면 백도리 10여 가구가 사는 아담한 마을. 이곳에선 한 달에 한 번씩 글쓰기 모임이 진행된다. 장소는 월간 <작은책> 발행인 안건모 씨의 집이다. 전문서적부터 소설까지 온갖 다양한 책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의 집은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마을주민과 안건모 발행인까지 모두 여섯 명으로 구성된 백도리의 글쓰기 모임은 어느덧 활동한 지 2년 차에 접어든다. 각자가 써온 글을 읽고, 경청하고 간단한 품평회를 거침으로써 나날이 성장해간다.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다는 것은 때때로 따듯한 충고를 받을 수 있기에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 안에서 성장통을 느껴야만 발전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거리두기가 절실한 이때,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한 달에 딱 한 번 주어지는 이 만남이 무척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들. 함께 모여 용기 있게 써 내려간 원석과도 같은 글들이 안건모 발행인의 훌륭한 지도 아래 매끄럽게 다듬어져 세상에 탄생하고 있다.

허진숙 마을기자(운주면 완창마을)



백도리 주민 여섯 명의 글쓰기 모임. 매달 한 번씩 만나 써온 글을 돌아가면서 읽거나 낭독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인생의 친절 한 힌트

사랑의 노래

10 춘하추동과 베토벤



얼마 전부터 동네 주민과 함께 마을걷기를 하고 있다. 너무 춥지않을까라는 앞선 걱정과 달리 입춘이 지난 이른 아침 마을회관 앞에는 햇살이 충분하여 앞뒤로 흐드는 손 말고는 딱히 추위가 느껴지지도 않는다. 겨울을 뚫힌 봄이 슬슬 움직이 나보다.

생로병사가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의 길이라면, 춘하추동은 미련한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버전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생로병사의 친절 한 힌트지 같다. 아직 숨어있는 봄에게 내 마음을 주고 음악을 들으며 동네를 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리히터(Sviatoslav Richter)가 연주하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피아노 소나타 1번. 환갑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베토벤이 25살에 첫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으니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의 인생 중 여름 즈음에 만든 곡이라고 해야할까. 25살에 첫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지만, 사실 그는 이 곡을 쓰기 전에 다량의 피아노 소품들을 작곡했다. 조용히 흠이 트는 봄을 지내는 동안 소나타의 작은 형식인 소나티네를 비롯하여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연주하지 않는 소품들을 만들어가며 꽃봉오리처럼 앙다문 자신의 첫 소나타 쓸 때를 기다렸다.

작곡의 과정이라는 게 흔히 접할 수 없는 부분이 다보니 사람들은 가끔 재밌는 상상을 한다. 예를 들어 작곡가가 처마 밑 물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영감을 받아 하얀 오선지를 펼치고 하늘에 떠도는 악상을 낚아채 머리를 쥐어뜯으며 음표를 그려나가다보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던지 하는 상상.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은 도움닫기하듯이 툭툭 튀어 최고음까지 점프하는 두마디로 시작하는데 이 첫 두마디에 이 곡의 전체 이야기가 담겨있다. 영감과 즉흥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악상이 아닌 봄 꽃봉우리처럼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는 첫 두마디를 쫓

고 나누어 작곡가가 춘하추동을 살아낼 이야깃거리를 뽑아내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첫 두마디를 잡고 군더더기 없이 정갈하게 음악적 동기(Motiv)를 곡의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25살의 베토벤이 보인다. 스스로에게 취하지 않고 음과 음열에 작품을 맞추며, 연주자가 악보만 정확히 지킨다면 작곡가의 부연설명 없이도 스스로 울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젊은 작곡가가 새삼 대단하다.

완주로 넘어와서 어설피게나마 처음으로 느낀 아침과 밤의 무게와 봄과 겨울의 공기차를 오늘 베토벤의 소나타를 들으며 다시 훑어보게 된다. 환한 아침에 에너지를 내고, 어두운 밤에는 잠을 자며 한껏 더운 여름에는 일들을 벌이고 손발이 얼어 추운 겨울에는 나만 보는 습작을 쓰며 몸을 웅크린다. 아침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나의 밤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봄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 안에 그 해 겨울이 들어 있다. 베토벤의 소나타 1번 첫 두 마디에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처럼.

덧붙이고 수식하는 것은 약간의 애만 쓴다면 힘들지 않지만,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어 풀어내는 것은 꽤나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움트는 봄을 그대로, 지나간 겨울과 새로운 겨울을 동시에 머금은 봄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높이 떠서 춘하추동을 한눈에 그릴 수 있는 봄이 되기를 바란다.

그나저나 클래식을 들으며 걷기 운동을 하는 건 별로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걸음걸이에 속도가 붙지를 않으니 그냥 어슬렁대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김민경(원주문화재단 한달살기 작곡가)

매일 설레

#33 만만하게 없어.



설레는 완주에 온 9년차 청년이다.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춘티작별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임인년의 자립 디자인



2018년 원주로 귀촌한 신미연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제로웨이스트,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한다.

[20]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자발적 가난을 꿈꾸기도 했던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여러 관계를 맺기도 하고 늘 일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이어왔다. 작년 한 해에는 월 100만 원씩 벌며 딱 그 정도로 생활해왔다. 그러나 나의 씬쌈이와 소비습관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확인한 후에야 앞으로의 물가 상승에 따라 나도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계획이 선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먹고사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욕심이자 무리이고 그만큼 자연에서 멀어질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도시뿐만 아니라 한없이 오르는 집값과 땅값에 지금 사는 삶도

지속가능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대로도 충분한 경전에서 삶의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벌이 적당히 쓰는 생활이 물가상승과 함께 평생 가지는 못할 것이다.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매월 나가는 집세며 자동차 유지비, 장보기, 외식비, 문화비용 등 시골살이에서도 나가는 비용이 꽤 많다. 앞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자급할 수 없고, 자급 이외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올해는 돈을 벌어보고 싶다. 나는 작정하고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떠한 한해가

펼쳐질지 기대된다. 시골에서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농사로 생업을 이어나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디지털노마드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넘어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고 한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이 어색했던 때가 무색하게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온 것처럼 가상세계도 그렇게 현실로 다가올지 미지수이다.

올해는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디지털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이뤄보고 싶다. 시골에서도 농사와 관광 마을지원사업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한편으로 지역에서 지원사업이 없으면 정착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시골살이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완두콩 새 식구

이제는 정착하고 싶은.

디자이너 한혜진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학창 시절 늘 노트 한 귀퉁이에 뭔가를 끄적거렸고, 시험지 뒷면은 늘 낙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장래희망은 한결 같이 화가 또는 디자이너였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정해진 수순처럼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을 들으며 캠퍼스를 걷던 12학년 스무살 새내기엔 어느새 올해 서른이 되었고, 벚꽃은 야근 후 퇴근길에나 구경하는 경력 5년 차의 편집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동경했던 디자이너의 삶은 마냥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늘 야근에 시달렸고, 안구건조증과 손목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늘 앉아 있다 보니, 하루에 500걸음도 채 걸지 못한 날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 20대의 마지막이 회사-집의 반복으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맞는 회사를 찾기 위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우울해하던 차에, 촌스럽지만 어쩐지 포근해 보이는 이름의 완두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완두콩은 어린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니고, 토실토실한 닭들이 사무실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무실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라면 매월 자체적으로 완주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간 다른 업체들을 위한 디자인만 해오다가, 자체적인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또한 면접 자리에서 자취중인 저의 월세와 식사까지 걱정해주시는 대표님을 보며 이곳이라면 내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완두콩에 열려 녹아들어서 디자이너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구건조증과 손목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밥 먹는

생태계 순환의 숨은 일꾼, 쇠똥구리

이근석의 완주공동체이야기 곤충의 세계에 감사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편리함을 쫓아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생활에서도 여지없이 보입니다. 씻기 귀찮아서 1회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터무니없이 크게 만들어 포장한다든지, 재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처치 곤란하게 규격화하지 않고 있는 얼음팩이나 입지 않고 쌓이는 옷들 등등. 우리 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없거나 편리함으로 자원의 낭비는 무지막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부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연히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 풍족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없는 것이 더 많아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생활이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취하지도 않고, 자연의 순리를 맞추어 욕심내지 않고 쌓아놓지 않는 생활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순환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쇠똥구

리는 가축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집을 짓고 후손을 키우는 곤충입니다. 배설물을 뭉쳐서 이용하다 보니 배설물을 빠르게 분해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고, 요즘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저감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설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 보니 쇠똥구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종류의 곤충의 소멸은 인간의 물질 만능만을 생각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축의 배설물은 이제 환경오염의 한 축으로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량으로 키우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농사에 활용하여 순환의 생태계를 이루었습니다. 각종 가축에게 일어나는 질병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편리

함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풀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비닐을 사용하는 멀칭이라든지, 제초제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든지, 온실가스를 염려하면서도 농기계는 점점 첨단으로 개발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소득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쇠똥구리와 같은 곤충이 없고, 땅을 기름지게 할 것들이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들만 있고, 시장경쟁에 대응하려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만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사업도 삶의 질을 고려해서 시설과 생산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이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사업에서도 검토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석은 귀촌해서 고산 성재리 화전마을에 살고 있다. 전북의제21 사무처장을 거쳐 지금은 소셜코츠센터 이사장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완두콩 새 식구

사회초년생 나야 나!

콘텐츠 기획 윤하나

2022년 새해부터 완두콩에서 기자로 일 하게 된 윤하나입니다. 첫 직장생활이라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안고 완두콩에 입사해 '제발 피해만 끼치지 말자'라는 마음을 매일 다짐하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이 고향인 저는 전북이 낯설기 보단 정겨운 마음이 더 큼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고개를 높이지 않아도 한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또 비가 오면 코를 찌르는 거름 냄새가 익숙해서 인가 같네요. 저는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를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다시 학교생활을 떠올려 보면 미디어 시장이 큰 변화 맞춰 '미디어 콘텐츠 기획과 제작' 수업을 들었던 것이 가장 기

역에 남습니다. 학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인쇄미디어의 특징을 살려 영상 미디어에서는 도출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글의 쓰임에 집중해 자세히 글로 풀어냈습니다. 또 정보 전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조원들과 힘쓰고, 인쇄매체가 소구력을 가지는 매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지역공동체 변화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을 저는 미디어공동체 완두콩에서 더 다양하게 접하고 싶습니다. 완주군 지역사회에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주민 행정의 거리를 좁혀 참된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완두콩협동조합 안에서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직 모든 게 어렵고 낯설어 퇴근하면 오늘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지만 다가올 새로운 배움도



해나가며 이 배움에 어렵지 않게 도전하는 제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완두콩 대표님에게도, 콘텐츠기획팀 선배님들에게도 무한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왔다고 반겨주시고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다가온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용맹함 기를 다 받으시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도록 사회초년생이 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두콩에서 맞이할 계절을 기대하며, To be continued!

환영합니다!



정월대보름 귀밝이술(耳明酒)



유승이는 전통주를 빚고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양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2]



대보름이 다가오면 엄동설한에 움츠렸던 마을이 소란해졌다. 사내아이들은 강통 바닥에 망치로 못을 두드려 구멍을 내고 양쪽 귀통이에 철사를 매달아 어스름 저녁부터 불기둥을 들리며 논두렁을 소다녔다. 할머니는 부림으로 땅콩과 콩을 볶고, 광에 놓아둔 술독에서 술을 떠놓으셨다. 집집마다 가을 내 말려두었던 호박, 토란대, 고구마순을 불렀다가 고소한 들기름에 묵나물을 볶고, 콩, 수수, 팥, 돈부롱 등을 골라 찰밥을 찐다. 열집 삼촌은 우스꽝스런 화장을 하고 배꼽이 드러나게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며 풍물패를 이끌고 집집마다 나물밥을 얻으러 다녔다. 멀리 윗동네서부터 풍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굿패들이 이집 저집을 지나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서면 할머니는 술과 안주를 꺼내오셨다.

술 한 잔에 동네 아저씨들이 치는 팽과리, 장구 소리는 더 신명났고 대보름 달빛이 가득 들어찬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정월대보름(음력 1.15)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앞두고 맞이하는 첫 번째 만월로 농경사회에서 설, 추석과 함께 풍요를 기원하는 큰 명절이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떠오르는 달 중 가장 크고, 가장 둥글고 환하게 뜨는 달을 보고 풍년을 비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24절기 총 192개의 세시풍속 가운데 대보름날의 세시풍속이 55개로 가장 많다.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더위팔기, 오곡밥과 부림, 귀밝이술 등 우리에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풍습이 적지 않다. 세시풍속을 정리한 「동국세시기(홍석모, 1849)」에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청주 한 잔을 테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

진다.”고 귀밝이술에 대해 쓰여 있다.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남너노소 구분 없이 차가운 청주를 조금씩 마시는데, 이러면 귓병에 걸리지 않고 귀가 밝아지며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하여 이명주(耳明酒)라고도 부른다. 설날(1.1) 도소주(屠蘇酒 : 도소주(屠蘇酒)는 ‘나쁜 기운을 몰리키는 술’이란 뜻으로, 약재 주머니를 넣은 그릇에 동내 우물이나 물이 담긴 채 해 첫날 그 우물물을 따 술과 끓여 마시면 ‘1년 내내 병이 걸리지 않아’ 하며 설날 아침에 마신다.)삼진날(3.3) 진달래주, 단오날(5.5) 창포주, 중앙절(9.9) 국화주처럼 특별한 재료나 정해진 주방문(술 빚는 법)없이 평소 빚어두었던 맑은 술을 차갑게 조금씩 마시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술은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건강과 복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몰리치고자 하는 치유의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겨우내 움츠러든 활기를 되찾기 위해 55가지나 되는 놀이와 행위가 전국 팔도에서 벌어지고, 한 해 좋은 말만 들으라는 기원으로 귀밝이술을 마시던 대보름날의 세시풍속은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자는 모두의 다짐처럼 보인다.

이제 고향의 대보름은 적막하고, 나는 기억 속의 그 소란했던 날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지만 텅 빈 고향을 생각하면 쓸쓸하다.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우리 고장 완주에서 휘영청 대보름달 뜬 밤하늘 위로 그 떠들썩함이 퍼져나가는 마을이 있다면 기꺼이 그 곳에서 귀밝이술 한 잔 마셔보고 싶다.

부음

평지마을 조찬수 어르신 향년 100세로 별세



비봉 평지마을 조찬수 어르신이 지난 2월 3일 오전 7시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어르신은 음력 1923년 6월 16일에 소양면에서 태어나 나이 열아홉에 남편을 만나 전주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며 슬하에 6남매를 뒀다. 52세부터는 서울에서 지내다 2020년 막내딸 김숙자(59) 씨와 함께 비봉 평지마을로 왔다. 숙자(59) 씨는 “살아생전 어머니는 그 시절에 초등 학교도 나오시고 주산도 아주 잘 하셨다.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니면서 변호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셨다”면서 “한마디로 신여성이며 항상 자식들에게 자상하고 좋은 엄마였다”고 말했다.

마을소식

완주체험학습 참여할 학생 모여라!

전국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주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완주체험학습프로그램은 총 6개 테마, 24개소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자연학습, 이색문화 등 오로지 완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특색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개관한 삼례그림책미술관에는 국내 최초로 ‘빅토리아시대 그림책 3개 거장전’, 아일랜드 그림책 작가 나옴이헤더 그림의 <요정과 마법의 숲> 그림책 등이 전시되어 있다.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 방문 시 버스 임차료, 체험·식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개별 방문객에게는 숙박비 최대 20% 할인 혜택 등도 지원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www.완주관광.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 접수(wt3930@daum.net)하면 된다. 문의처 완주군 문화관광과(290-2623), 관광마케팅지원센터(290-3933).

농/촌/별/곡



차 남 호

설을 쇠고 나서 세월이 어찌 흐르는지 잊고 있었는데 방금 전 벼농사두레 특방에 눈에 번쩍 뜨이는 멘션이 하나 올라왔다.

‘내일 모레 대보름에 즈음하여 고산에서 이명주-귀밝이술 한잔 하실 분 선착순 모집!’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저요! 저요!” 이 모티콘을 올려놓고 생각해보니 어느새 정월대보름인가 싶고, 빠르게 이어지는 연상 작용에 심사가 울적해진다. 이제 술을 품을 풀면서 농사지를 준비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러자면 대보름잔치 달집 활활 태우며 겨우내 움크렸던 가슴을 활짝 피워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잔치를 건너뛰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

과도기와 적정선

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로 접어든 탓이다. 한편 으른 그것이 팬데믹 종식으로 가는 징후라는 진단도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하여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걱정이다. 하루 5만을 넘어 6만에 가까우니 당국으로서도 아직 방역체계를 풀거나 늦추지 못하는 어정정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보름잔치가 문제가 아니다.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고 언제 되살릴 수 있는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게 뼈아픈 것이다.

우리 벼농사두레만 해도 벌써 이태 꽤 손발이 묶여 있다. 당장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어야 할 ‘농한기 강좌’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연초의 회원멘티도 그랬고 또 무엇을 건너뛰게 될지 몰라 조바심이 드는 것이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지 최근 들어 새로 합류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여간 반갑지가 않다.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개점휴업’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더욱 뜻 깊게 느껴진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빛의 세계, 삶이 펼쳐지는 국면이 펼쳐지려는 징조인가 싶기도 하다. 반가운 마음이 앞서 이어지는 ‘병개’모임에 덤섬덤섬 함께 하고 반가운 마음에 무리를 하게 된다.

무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또 있다. 어느 날 불현

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십 수 년 버릇이던 혼술(혼자 술 마시기)을 그만두었다. 그리 한 지 이제 석 달이 돼간다. 건강보다는 정신세계를 염두에 둔 일이라 잘 한 것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 싶다. 일단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문제도 없지 않다. 그 반작용 탓인지 함께하는 술자리마다 적정주량을 넘기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물론 과도기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적정선을 찾게 되리라 여기고 있다. 하여 혼자 있을 때는 맑은 정신으로 탐구하고 여럿이 어울릴 때는 술기운이 바람직한 소통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요컨대 피할 수 없다면 누리라는 것이고, 누리되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의 활력소로 벌어지는 술판이 한 발 더 나아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통찰하는 자리로 진화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다. 사실은 그것이 내 남은 생의 중요한 버킷리스트의 하나였고, 이제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시원스레 소통하기 어려운 팬데믹 시대의 비극이 되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꿈은 이루어지기를.

비봉 염암마을

완주군의회에선

올들어 첫 개회 15개 상정안건 처리

이경애·서남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7일 완주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상정안건은 총 15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는 ▲9일 의회사무국(운영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국(산업건설위원회) ▲10일 건설안전국, 완주산업단지사무

소(산업건설위원회) ▲11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경애 의원과 서남용 의원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확대 필요’, ‘농어촌기초소득도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라는 제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재천 의장은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이라는 고사를 예로 들며, 완주군의 산재해 있는 현안과제들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해결하자”며, “민선7기와 제8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개회사를 통해 강조했다.



완주군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O3공동체

- 발행처: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 발행인: 이용규
- 주소: 55310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 대표전화: 063-291-8448 • 팩스 063-261-8448
- 홈페이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심심한 완주 모어모어해쳐모어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진행 중이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새해맞이 색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새로운 2월의 완주의 청년 안전하게 모어모어해쳐모어!

삼례 청년 문화공간 '완충지대' | 우드카빙 인센스홀더 만들기 |

- 올해는 계절별 주제를 나누어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으로 올 봄은 생활과 환경 주제로 우드카빙 인센스홀더와 티스폰 만들기 한다.

진행 정보: 2월 17일 (목) 오후 7시~9시 (1회차)
2월 19일 (토) 오후 2시~6시 (2회차)

참가 비용: 5,000원



삼례 살롱 매니저와 티타임 |

- 그대들의 요즘은 어떤가요? 자몽&자미 매니저와 함께 하는 수다타임!

진행 정보: 2월 26일 (토) 오후 2시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인스타그램: wanchungjidae

참가신청: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 양식 작성 후 제출



이서청년 거점공간 '이서니루'

새살스럽게 살기 - 나의 사계절 담기 |

- 나의 사계절 담기란 다양한 미술기법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총 다섯번 진행되며 분기별(계절별)로 일정을 잡아 1년을 함께한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오직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이른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 중 각 하루씩 만나 사계절을 온전히 함께 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진행 정보: 2월 25일 (금) 오후 7시

- 꽃 정물화 | 봄

- 플랜테리어 몬스터라 | 여름

- 어반스케치 1,2 나의 BEST 컷 그리기 | 가을, 겨울

참가 비용: 30,000원

주소: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0

(공취팔취도서관, 5층 이서니루 세미나실)

문의: 010-7363-7538

인스타그램: planetwanju.3

마을 시민 성장을 돕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완주미디어센터

+ 시골극장 쉼씨네 상영 안내

입춘이 지났어도 여전히 추운 2월의 날씨, 하루빨리 따스한 봄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여 시골극장 쉼씨네 2월 상영작을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필수착용, 열 감지를 반드시 실행해야만 관람이 가능하다.

날짜	시간	제목	관람가
16일	오후 2시	애자	15세 관람가
19일	오후 2시	겨울왕국2	전체 관람가
22일	오후 7시 30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15세 관람가
23일	오후 2시	리틀 포레스트	전체 관람가
26일	오후 2시	왕자가 된 소녀들	전체 관람가

문의: 262-1895

운영시간: 월 ~ 토 오전10시~오후6시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관)

점심시간: 오후12시~1시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 완주미디어센터 |

마을미디어활동가 양성과정 모집공고

마을의 소중한 이야기를 미디어(영상, 라디오)로 기록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영상 콘텐츠 강좌 혹은 라디오 콘텐츠 강좌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란을 참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자.

자격: 만19세~55세, 유튜브뷰트 8명, 팟캐스트뷰트8명 (총 16명 모집)

신청기간: 2월25일(금)까지

접수방법: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교육신청

문의: 070-4218-4300 (사업팀)

홈페이지: wanjumediacycenter.kr

	교육 일정
영상콘텐츠	3월 15일 (화) ~ 4월 14일 (목) 매주 화,목 오전10시~오후12시 / 총 10차시
라디오콘텐츠	3월 16일 (수) ~4월 8일 (금) 매주 수,금 오전10시~오후12시 / 총 8차시

공통	마을 미디어 특강 3월 8일(화), 3월 10일(목) 화,목 오전10시~오후12시 / 총 2차시
장소	완주미디어센터 일반 강좌실, 디지털교육실, 영상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에서 진행

미술관 이야기

전북도립미술관

- 전시실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전시실의 질서유지와 작품을 보호 안내하고 편의를 도모, 원활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	전시실 자원봉사자
모집기간	상시 모집
모집연령	2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업무내용	질서유지 및 관람객의 편의도모 작품 지킴역할 및 안내
실비	20,000원 (월 8시간)
근로조건	근무일: 주6일, 휴일근무필수, 월요일 휴무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접수방법: 사전 연락 후 현장접수 (제출서류 첨부과 함께 방문접수)

문의: 290-6863 (전라북도미술관 기획운영팀)

주소: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복합문화지구 누에

- 영원한 춘몽(春夢)

독자적인 조형 양식으로 전북 근대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완주 출신故권영술 작가를 기억하며 영원한 춘몽(春夢) 권영술, '고향의 빛을 그리다가 전시된다. 누에가 기획한 2022년 완주 작고 작가전 첫 전시회로 소개되는 권 회백의 작품은 전주 우진문화재단 소장품 32점이다. 전시 관련 사항은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 가능하며, 안전한 전시 관람을 위해 누에 아트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주소: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246-3951

BOOK! BOOK! 기다렸어 도서관 이야기

「토요명작극장」 공취팔취도서관 영화상영 안내문

지루하지 않은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 공취팔취 도서관으로 선착순 50명 입장! 서둘러 무료 영화 보러 가자. 관람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2월 12일 (토) 오후 3시	패딩턴	애니메이션	전체관람가
2월 19일 (토) 오후 3시	피부색깔=골색	애니메이션, 다큐	12세관람가
2월 26일 (토) 오후 3시	오베라는 남자	드라마	12세관람가

주소: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40 공취팔취 도서관 3층 강당
문의: 290-2449, 290-2659



화산골짜기도서관 2022 겨울독서교실 안내문

세계지리와 역사 |

- 알고 싶은 세계의 나라 위치, 지형, 문화와 역사 등을 배워볼 수 있는 겨울독서교실이 진행된다. 마녀 손인선 선생님께서 쉽고 재밌게 겨울독서교실을 함께해보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진행 장소 및 일시 등을 확인하여 아래 번호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진행 정보: 2월 14일 (월) 오전 10시~11시30분 (1회차)

2월 16일 (수) 오전 10시~11시30분 (2회차)

2월 17일 (목) 오전 10시~11시30분 (3회차)

대상: 초·중·고학년

과학탐구교실 |

-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과학을 쉽게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신현배 선생님과 함께하는 원소 산과 염기 영양소 검출 실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하도록 하자.

진행 정보: 2월 21일 (월) ~ 2월 23일 (수) 3일간

오전 10시~11시30분

대상: 중·고등학교

주소: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30-14

문의: 263-1199

동상생활문화센터 강사·수강생 모집

동상생활문화센터에서 아래 분야의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번호로 전화접수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3차 접종자에 한해 모집한다.)

문의: 010-9497-2520

모집분야: 원예치료, 라인댄스, 노래교실, 풍물, 도예, 통기타중급반, 웃음건강체조

모집기간: 수 강 생 2월14일 (월)~ 2월18일 (금)

강사: 2월21일 (월)~ 2월25일 (금)

운영기간: 3월7일 (월)~ 5월28일 (토) 12주

주소: 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408 복지건강진료센터

오래오래 건강하게!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해야한다.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 함께 실천하자!



문의: 120(지자체 콜센터) · 1577-095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완주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대상자 변경 안내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선별진료소 부근 선속항원검사 구역을 별도로 마련, 의료·검사체계 전환의 핵심 중 하나인 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역학적 연

관성이 있는 사람, 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사소견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우선순위 대상자로 인정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속항원검사 대상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와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으로 검사소 내 별도의 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아래 검사 대상자가 직접 선속항원검사를 하게 된다.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포함)

장소: 삼례읍 삼봉8로 10-10 완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문의: 290-3015

청년동아리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완주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동아리를 발굴하여 청년간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의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어 온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2021년까지 총 45개 동아리를 육성·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배드민턴, 보드게임, 육아, 독서,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선정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완주군은 동아리 내부 회원들의 친목이 아닌 지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거점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 가능성이 큰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청년정책 공고문 참고)

자격: 완주군민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 (최소 3명 이상)

신청기간: 2월21일(월)~ 2월22일(화)

접수방법: 용진읍 지안로6(완주군청 사회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심사안내: 02월 25일 예정, 개별 연락

문의: 290-3238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

홈페이지: youth.wanju.go.kr

사랑해 주세요

원동이
체중: 7.9kg **나이:** 4살 추정
건강상태: 심장사상충, 파보, 코로나 음성

누렁이
체중: 9kg **나이:** 4살 추정
건강상태: 심장사상충, 파보, 코로나, 지랄디아 음성, 중성화 완료, 대퇴골두 관절염으로 근위축 상태이나 걷는데는 지장 없으며 상태 호전 중

원동이는 누렁이는 봉동의 공단지역과 아파트 인근의 떠돌이 견이었습니다. 한 때 보호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강아지는 언제나 꼭 붙어다니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심시일만 힘을 보태 함께 돌보고 있었으나 원동이의 출산으로 부득이 보호소에 오게 되었고 이후 한 봉사자님의 도움을 받아 건물 옥상 한편에 두 강아지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옥상생활에서 지내는 어려운 상황으로 따뜻한 가족이 절실합니다.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22 Beyond Community 소셜굿즈 공예품 전시회

일시 2022. 2월 중순 ~ 2022.12월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AM 10:00-PM 18:00

장소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

나만의
전시장



완주소셜굿즈센터는 Beyond Community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완주소셜굿즈센터와 완주군 문화관광과가 함께
완주군 지역 작가 및 지역공동체가 만든 공예품을
2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셜굿즈 전시 코너에는 연품쌈지(천공예), 봄사이클링(목공예), 레가로(가죽공예),
가우리(가죽공예), 놀터(페이퍼아트) 등 총 5곳의 공동체가 참여했다.
각각의 공동체에서 전시한 상품은 20여점으로 총 80여점의 공예품을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상설 운영되며 전시품은 시기별로 상이하다.

이외에도 소셜굿즈는 한지조명 만들기, 가죽핸드폰케이스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추후에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없으나 신청자는 별도의 재료비 납부가 필요하다.



관람 문의 : 삼례문화예술촌 (070-8915-8121)